



독일 생태문학의 발전 과정

Entwicklungsgang der Deutschen Ökologischen Literatur

저자
(Authors) 사지원
Sa Sun Ok

출처
(Source) [카프카연구 11](#), 2004.12, 79-96 (18 pages)
[Franz Kafka 11](#), 2004.12, 79-96 (18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카프카학회](#)
Koreanische Kafka Gesellschaft

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1248539>

APA Style 사지원 (2004). 독일 생태문학의 발전 과정. 카프카연구, 11, 79-96.

이용정보
(Accessed) 고려대학교
163.152.3.31
2016/04/05 17:10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자료를 원저작자와의 협의 없이 무단게재 할 경우, 저작권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The copyright of all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original author(s). Nurimedia is not responsible for contents of each work. Nor does it guarantee the contents.

You might take civil and criminal liabilities according to copyright and other relevant laws if you publish the contents without consultation with the original author(s).

독일 생태문학의 발전 과정

사 순 옥(전국대)

I. 들어가기

기상이변과 산성비, 황사현상과 오존층의 파괴로 인한 폐해와 인류의 존속여부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지도 30여 년이 지났다. 그러나 '생태문학' Ökologische Literatur이라는 용어는 아직 정확히 정의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만큼 그 범위가 넓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명칭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고 필자가 평소에 선호하는 '생태문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 생태문학은 모든 생명이 서로 관계를 맺고 의존하고 있다는 생태학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세계관을 보여주며 생태사회를 목표로 하는 미래지향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 개념에는 인간 중심적 사고와 이윤추구만을 목표로 하는 무자비한 개발, 그로 인한 폐해와 삶의 피폐화, 산업화와 진보가 초래한 악영향을 비판하는 등 단순히 파괴의 실상을 폭로하거나 이에 문제를 제기하는 작품들도 포함된다. 이 작품들에 생태학적 인식이 명백히 드러나 있지 않을지라도 근본적으로는 생태계의 파괴와 닿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넓은 의미로 개념이 규정되어질 때, 생태문학은 다양한 양태로 나타나는 생태문제와 그만큼 여러 방식으로 표출되는 작품들을 포괄하여 생태사회를 실현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독일 생태문학 내에서 생태소설만을 다루고자 한다. 그것은 생태소설에 대한 연구물이 생태시에 비하여 저조한 편이기 때문이다. 독일 생태시에 대한 연구는 페터 코르넬리우스 마이어 타슈 Peter Cornelius Mayer-Tasch가 1981년에 사화집 『직선들의 폭풍우 속에서. 독일의 생태시 1950~1980 Im Gewitter der Geraden. Deutsche

Ökolyrik 1950~1980』을 편찬함으로써 활발해졌다. 사실 생태시에 비하여 생태소설은 작품이 많지 않다. 그 이유는 생태소설은 생태계의 훼손 상태나 오염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문학적 상상력을 발휘해야 하는 어려운 작업일 뿐 아니라 경제와 경제계와 얽혀있는 예민한 문제를 건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설은 우리 인간사회의 살아가는 모습을 총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생태학적 인식을 기반으로 생태학적 대안을 모색하는 가장 적합한 장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독일 생태문학의 단초와 산업화 시기의 생태문학 그리고 여러 사회운동에 힘입어 생태문학의 논의가 본격화 된 1970~1980년대의 소설을 대략적으로 살펴 그 흐름을 훑어보겠다. 특히 1970년대에 시작된 환경운동, 평화운동, 여성해방운동과 같은 대안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작가들의 작품을 조명해 보겠다. 이들의 소설이 생태문학을 대표하는 작품이어서라기 보다는 이들이 다른 작가보다 먼저 당시의 사회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면 생태문학의 단초부터 더듬어 보자.

II. 독일 생태문학의 단초

독일은 18세기까지만 해도 정치와 경제 뿐 아니라 문화·예술면에서도 영국과 프랑스에 뒤떨어져 있었다. 영국에서는 16세기에 셰익스피어가 세계문학을 이끌었고 17세기에 의회민주주의를 발달시켰고, 프랑스에서는 17세기에 몰리에르, 라신느, 꼬르네이유가 고전주의를 융성시켰으며 18세기에 대혁명이 일어났다. 그러나 낭만주의 시대인 19세기에 들어서자, 위대한 학자와 문인들이 독일에서 대거 배출되고 학문과 문화가 꽃피기 시작했다. 따라서 18세기말부터 싹트기 시작한 낭만주의 문학으로 거슬러 올라가 생태문학의 단초를 찾아보겠다.

독일 낭만주의는 영국의 경험론과 프랑스의 합리주의에 입각한 유럽의 계몽주의를 비판적으로 인식한 데서 출발한다. 이성적·분석적 사유를 바탕으로 세계를 조각내고 자연의 신비를 벗겨 그것을 지배하려 했던 계몽주의와는 달리 낭만주의는 전체성을 강조하고 자연을 통합적이고 신비로운 존재로 여겼다. 때문에 낭만주의자들은 자연을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할 뿐 조화의 아름다움과 총체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계몽주의자들의 기계적 사고를 비판했다. 낭만주의의 대표작가 노발리스는 1799년에 발표한 「기독교 혹은 유럽 *Die Christenheit und Europa*」에서 프랑스의 계몽주의자들이 자연과 대지, 인

간의 영혼과 문학 등을 말끔히 쓸어내는데 진력하였고 수학적인 순종성을 총애하였으며 빛이 색깔과 어울리는 것보다 조각조각 부서지는 것을 좋아했다¹⁾고 비판한다. 그는 또한 건조한 과학적인 사유가 파괴적인 전쟁과 분열을 야기하고 정복과 소유와 같은 욕망을 낳았다고²⁾ 힐책한다. 노발리스에게 자연은 임의적으로 분할하여 점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모든 종족의 공동의 근거지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자연은 “인간이 상실한 공동체적 감정을 회복시켜 주는 심급기관”³⁾이며 사유로 파악되는 객체가 아니라 정신적 존재이고 살아있는 주체이다. 그리고 이 자연과 인간은 서로 지속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며 새롭게 생성되는 관계이다. 이러한 자연과 정신의 교환관계는 “자연은 눈에 보이는 정신이고 정신은 눈에 안보이는 자연이어야 한다”⁴⁾는 사고를 낳으며 “정신과 자연의 접촉만이 정신”⁵⁾이라는 낭만주의의 ‘자연정신’을 낳는다.

후기 낭만주의 작가 베티나 폰 아르님에게는 이 ‘자연정신’이 삶의 원동력이었다. 베티나가 『한 아이와 괴테의 서신교환 Goethes Briefwechsel mit einem Kinde』(1835)에서 “모든 자연은 정신의 상징이며, [...] 사람은 자연을 통해 스스로의 정신을 깨닫게 됩니다.”⁶⁾고 고백하고 있듯이, 자연은 그녀의 정신을 성장시켜 주는 주체이다. 또 그녀는 서간체 소설 『귄데로데 Die Günderrode』(1844)에서 나무들이 사람들에게 의해 잘려나가는 것을 회상하며 정신과 자연의 단절을 느낀다. 그녀는 이를 “자연의 소멸 뿐 아니라 인간 본성의 자기파괴와 소외”⁷⁾라고 인식한다. 즉 인간과 자연의 의사소통이 인간의 행위에 의해 단절된다는 것이다. 모든 대상을 압박하고 파괴하는 오성이 인간과 자연간의 소외를 초래한다고 본 것이다. 베티나는 끊임없는 자연과의 접촉을 통해 성숙된 정신의 결실을 보고 이를 문학적으로 표명하였다. 자연을 정신적 가치로 또 정신적 성장의 교본으로 여겼던 베티나의 사고는 지구상의 모든 존재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생태학적 세계관과 같은 맥락에 있다.

1) Novalis: Die Christenheit und Europa, Werke, Bd. 2, 734쪽, 최문규: 자연철학에 기초한 독일낭만주의의 자연관 및 문학관, 32쪽에서 재인용. 실린 곳: 윤호녕/최문규/고갑희: 19세기 자연과학과 자연관,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2) 같은 곳.

3) 같은 곳.

4) H. Schanze (Hrsg.): Romantik-Handbuch, Stuttgart 1994, S. 605.

5) B. v. Arnim: Die Günderrode, Hrsg. v. Elisabeth Bronfen, München 1982, S. 213.

6) B. v. Arnim: Goethes Briefwechsel mit einem Kinde (in Sämtliche Werke, Bd. 4), Hrsg. v. Waldemar Oehlke, Berlin 1920, S. 5.

7) E. G. Ametsbichler/H. Arens: Erzählstrategie und Geschlechtskomponente in Bettina von Arnims Die Günderrode und Clemens Brentanos Frühlingskranz. Ein Vergleich. In: Internationales Jahrbuch der Bettina von Arnim-Gesellschaft (Forum für die Erforschung von Romantik und Vormärz, Band 5 (1993) Berlin, S. 87.

베틀나 폰 아르ним의 이러한 세계관은 인간 해방으로 이어진다. 집안의 하인들까지도 제급의식이 나 차별의식이 없이 한 식구로 여긴 그녀는 여러 사회문제를 접한 1830년대 이후부터는 사회·정치적으로 억압받는 이들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며 국가적 차원의 개선을 요구하는 글들을 발표한다. 1837년에 괴팅엔 대학의 일곱명의 교수가 하노버 왕의 헌법 위반에 대해 공개적으로 항의하다가 영토 밖으로 추방당한다. 베틀나는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빌헬름 4세에게 이 교수 중 야콥 그림만이라도 베를린 대학으로 초빙해달라는 탄원서를 낸다. 이 탄원서가 성과를 거두자, 그녀는 왕에게 희망을 걸고 『이 책은 왕의 것이다 Dies Buch gehört dem König』(1845)를 집필하여 헌사한다. 저서는 베를린의 빈민굴, 국립빈민구호소, 노동자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한 결과에 대한 보고서이다. 저서에서 그녀는 민중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한 귀족들을 비난하고 모든 종류의 특권을 금할 것과 정치적 자유를 요구한다.⁸⁾ 그러나 왕이 각료들의 비난에 부딪쳐 자유 진보적인 정치노선을 바꾸자, 그녀는 『악령과의 대화 Gespräch mit Dämonen』(1852)를 발표한다. 1844년 쉴레지엔에서 직조공들이 봉기를 일으켰을 때, 베틀나는 이들을 베를린에서 지원하며 독일 주요신문들에 독일의 빈민상황을 보도하라고 요구한다. 이 봉기가 있기 전에 그녀는 조세와 수입의 통계를 근거로 궁핍의 책임은 국가와 지배계층 주도의 경제제도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저서의 출판을 계획하였다.⁹⁾ 그러나 베를린 시 당국에 의해 국가모독죄로 소송이 제기되어 출판은 수포로 돌아간다. 소송은 2개월 금고형의 선고로 끝이 난다.

베틀나 폰 아르ним은 ‘최초의 사회주의 여성’이라 불릴만큼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불공평한 분배와 인권 탄압을 인식했으며, 인간에 의한 인간의 지배를 타파하기 위해서 열정을 쏟았다. 그녀는 문학의 사회적 역할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문학을 통해 진정한 인간 해방을 부르짖었다. 이는 인간과 자연, 주체와 객체, 이성과 감정을 구분하지 않는 수평적이고 평등한 가치관, 즉 생태학적 세계관에 기초한 것이다.

낭만주의자들의 자연관에 신비적이고 관념적인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자연을 살아있는 유기체로 여기고 자연과 인간의 소통을 추구하며 사회문제를 지적한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일이다. 바로 이러한 낭만주의의 세계관에서 우리는 생태문학의 단초를 엿볼 수 있다.

8) B. v. Arnim: *Dies Buch gehört dem König* (in *Sämtliche Werke*, Bd. 6), Berlin 1921 참조.

9) Vgl. B. Gajek (박진영 역): Bettina von Arnim. Von der Romantik zur sozialen Revolution. S. 8-10. 실린 곳: 계명대 독일학지, 1992, 1-13쪽.

III. 산업화 시기의 생태문학

1830년대 후반 들어, 독일에 철도가 개통되고 공장들이 들어섰다. 그러자 농촌인구가 도시로 몰려들고 신시가지가 형성됨으로써 자연과 농촌이 점차 붕괴되어 갔다. 과학화, 기술화, 물신화해 가는 세계에 대한 우려가 이제 직접 생계와 실존의 문제와 부딪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도시와 농촌, 가내공업과 기계산업, 전통과 근대를 대립시키는 소설들이 등장한다.

고트프리트 켈러는 『마을의 로메오와 율리아 *Romeo und Julia auf dem Dorfe*』(1856)¹⁰⁾에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독립된 이상적인 농촌시민사회가 근대화되고 자본주의화 하면서 몰락해 가는 과정을 그린다.

만초와 마르티는 켈트빌라 근처의 마을에서 덕망 있고 든든한 경제기반을 가진 “최고의 농부에 속하는” 인물로 안정된 시민사회의 일원이다. 소설에서 두 농부가 평화로이 쟁기질을 하는 장면은 자연의 일부로 장면 전체가 극히 조화로운 정경을 자아낸다. 그러나 건전하고 건강한 정신을 가졌던 두 농부는 자기네들 밭 사이에 있는 하찮은 돌무더기 땅의 경계선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가 협잡배의 부추김에 재판까지 가게되고 도시에서 몰려든 투기꾼들에게 사기를 당해 땅을 잃고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간다. 두 집안의 아들과 딸은 소꿉친구로 사랑하는 사이이다. 하지만 시민사회의 도덕성을 철저히 내면화하고 있는 이들은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깨닫고 자살하고 만다.

켈러는 《취리히 금요신문》에서 양숙관계가 된 두 집안 젊은이들의 죽음을 “만연해 가는 풍기 문란과 정열의 야만화”¹¹⁾라고 평가한 기사를 보고 소설의 착상을 얻었다. 때문에 소설은 두 농부의 몰락과 자녀들의 비극적인 운명은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사회전체의 변화와 연계 속에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다. 즉 자본주의의 확대로 대부분의 시민이 프롤레타리아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적 모순을 지적한 것이다. 그리고 이로써 두 젊은이의 죽음에 대한 사회적 판단에 제동을 건다. 소설은 자연의 섭리에 따라 땅을 일구며 이웃과 소박하게 살던 사람들이 자본주의에 물들어 대지와 고향을 버리고 사랑을 파괴하는 모습, 즉 자연생태계와 사회생태계의 파괴 뿐 아니라 인간성의 황폐화까지 생태계 전반의 문제를 다루었다.

반면에 빌헬름 라베는 화학공장의 설립으로 인한 가내공업의 몰락과정을 『피스터의 방앗간 *Pfisters Mühle*』(1884)¹²⁾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라베는 브라운슈바이크

10) G. Keller: *Romeo und Julia auf dem Dorfe* (in *Die Leute von Seldwyla*), München 1991.

11) Ebd. S. 128.

근교의 한 설탕공장에서 방류한 폐수로 인하여 야기된 소송사건을 듣고 이 소설을 탄생시켰다.

물레방앗간을 운영하고 있는 피스터씨는 근처에 새로 생긴 설탕공장 크리커로데에서 방류한 폐수로 인해 물고기가 죽고 물이 오염되어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게 되자 공장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방앗간 주인과 공장주의 투쟁은 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로 넘어가는 혼란을 대변한다. 피스터씨는 승소하지만 시대는 이미 물레방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전통이 근대의 건조한 기계주의에 밀려나고 만 것이다.

『피스터의 방앗간』은 “현대 환경오염의 문제를 주제로 삼은 최초의 문학작품의 하나”¹³⁾로 당시의 생태소설과 달리 넷물의 오염실태를 직접 보여줌으로써 자연파괴에 세 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세기전환기의 생태문학은 산업화와 도시의 광역화에 대립하여 씨족사회와 토착문화를 예찬하고 대지를 찬양하며 이상향을 설정하고 있다. 예컨대 빌헬름 폰 폴렌츠 Wilhelm von Polenz의 『그라벤하겐의 사람 Der Grabenhäger』(1897), 구스타프 프렌센 Gustav Frenssen의 『외른 울 Jörn Uhl』(1901) 헤르만 뢰스 Herman Löns의 『이리로 둔갑한 사람 Der Wehrwolf』(1910) 등이 여기에 속한다.

20세기의 전반부에는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으로 인한 자연생태계와 사회생태계의 파괴 뿐 아니라 인간에 내재하고 있는 마성과 고도로 발달한 과학문명 및 산업기술의 노예가 되어 가는 인간상 등 생태적 문제의식을 엿볼 수 있는 소설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IV. 대안운동과 작가의 활동

하지만 생태문학이 본격화 될 수 있었던 것은 1970년대에 활성화 된 시민운동 덕분이다. 독일에서는 1960년대 말부터 소규모로 시민단체의 활동이 있었다. 이들은 주로 쓰레기 매립지나 지역 정비계획 또는 시 중심부 우회도로 등의 수정을 요구하는 일을 하였다. 이 시민운동이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게 된 최초의 사건은 1969년 하노버에서 있었던 시외 버스 요금인상 반대시위이다. 이후 여러 시민단체가 단합하여 집단적인 힘을 발휘했다. 시민단체들은 기존과 다른 새로운 가치관을 세우기 위해 여러 사회운동을 추진했다. 이 운동은 환경, 여성해방, 평화운동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대안운동 Alternativ-bewegung이라

12) W. Raabe: *Pfisters Mühle*, Stuttgart 1985.

13) W. Jens (Hrsg.): *Kindlers Neues Literatur Lexikon*, München 1991, S. 847.

불렸다. 따라서 이 시민운동은 1960년대 말의 학생운동과 성격이 다르다. 학생운동은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고 대학교육제도의 개혁과 반 권위주의를 부르짖으며 전지구적인 사회개혁을 꾀했다. 전국에서 모여든 시민들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펼친 운동은 1975년 라인강 상류지역의 뵐과 1976년 10월과 11월에 엘베강 하류의 브로크도르프 지역에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반대한 시위이다. 또 1977년 5월에는 방사능폐기물 처리장으로 계획된 베저강변의 그론데 지역과 엘베강의 고르레벤 지역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는 글을 발표했던 작가가 1972년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하인리히 뵐 Heinrich Böll이다. 뵐은 「브로크도르프와 뵐 Brokdorf und Wyhl」이라는 글에서 “너희에게 대지를 예측시킨다는 것은 대지를 파괴하고 경시하라는 의미가 아니다.”고 각성을 촉구하며 나치즘이 파괴시킨 「피와 토지」에 내재된 “진정한 가치”와 “공동체”¹⁴⁾에 대한 의미를 회복시키자고 호소한다. 나아가 뵐은 녹색당의 결성을 적극 지지한다. 그가 보기에 녹색당은 1970년대의 성장제일주의와 소비를 최고의 미덕으로 여기는 독일사회에서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이었다. 평생지기이며 20세기의 마지막 노벨문학상 수상자 귄터 그라스 Günter Grass가 골수 사민당이었던 반면에 뵐은 사민당이 언론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학생운동 이후 생겨난 테러 집단 적군파(RAF)에 대한 경찰권력을 남용하며 포용력 없는 정책을 펴는 데에 크게 실망하고 녹색당으로 전환한다. 또한 뵐은 녹색당의 핵심 구성원이 된 동독의 사회생태론자 루돌프 바로¹⁵⁾를 동독의 감옥으로부터 석방시키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하였다.

뵐이 녹색당에 관심을 보였던 또 다른 이유는 녹색당의 평화운동이다. 소련이 1977년부터 신형 핵탄두 중거리 미사일을 동유럽에 배치하자, 나토는 1979년 12월 브뤼셀에서 이중결의를 한다. 그것은 퍼싱 II 중거리 미사일과 쿠르즈 미사일을 유럽에 배치시키고,

14) H. Böll: Essayistische Schriften und Reden, Bd. 3, Hrsg. v. Bernd Balzer, Köln 1980. S. 417.

15) 바로는 동독의 공산주의 체제를 분석하고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SED)의 토대를 이루는 근거들을 문제삼은 『대안. 현존하는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 Die Alternative. Zur Kritik des real existierenden Sozialismus』(1977)의 일부를 서독의 《슈피겔 Der Spiegel》에 발표하고 서독의 텔레비전과 인터뷰를 한다. 이 일로 인하여 그는 8년 금고형을 선고받는다. 동독정부는 국제적 압력에 못이겨 그를 석방한다. 바로는 즉시 서독으로 이주하여 1985년까지 녹색당에서 활동하다가 1989년 다시 동베를린으로 돌아간다. 이후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에서 사회생태학 연구소 교수로 재직하다가 1997년 백혈병으로 사망하였다. 바로 이론의 핵심은 자기근절의 논리 Selbstausrottung과 근본주의 Fundamentalismus이다. 현대의 산업체제는 자본과 기술과 과학이 함께 작동하여 자신과 모태를 뿌리 채 근절시키는 메가머신이다. 따라서 서너 세대의 복지는 반드시 수세기에 걸친 질병과 고통으로 그 대가를 지불할 것이고 생태위기는 자본주의의 종말을 가져올 것이다. 생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주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는 인간의 영적 정신적 전환으로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전환에의 의지이다(Rudolf Bahro, 『Die Logik der Rettung』, Stuttgart 1987 참조).

모스크바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이후 동서 양진영은 강력한 군사력만이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논리로 군비의 균형을 외치며 점점 무장 수위를 높여갔는데, 독일 작가들은 무장해제운동과 평화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친다. 이때 특히 뵐과 쿤터 그라스 및 크리스타 볼프가 주요연사가 되었다. 뵐은 미소 양대 국가가 내세우는 무기의 균형이라는 논리에서 모순과 허위를 지적하고 무조건적으로 무장강화를 반대하였다. 반면에 그라스는 핵무기에 투자하는 비용을 기존 무기 강화를 위해 사용하자는 견해였다. 볼프 Wolf는 “적자생존이 지배하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끝까지 평화를 추구하는 학문은 오로지 문학”¹⁶⁾이라고 단언했다. 때문에 이들은 자연파괴, 끝없는 경제성장, 여성과 소수민족의 차별 등을 제재로 한 작품에서 대립을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에코토피아를 그린다.

V. 에코토피아를 지향하는 생태문학

‘행동하는 지성인’이라는 칭호가 붙은 쿤터 그라스는 1970년대의 여성해방운동에 주목하고 1977년 『넙치 Der Butt』¹⁷⁾를 발표한다. 전지적 존재인 ‘넙치’는 여성에게 의지하여 평화스럽고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역사 이전의 남성에게 여성의 그늘로부터 벗어나 역사를 만들라고 부추긴다. 그때부터 인류에 지배문화가 생긴다. 자연으로부터 소외되고 출산능력을 갖지 못한 남성은 자연에 위협을 느끼고 그 자연을 정복하고자 하며 “오로지 기록에 의하여 살아남고자” 한다. 폭력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작가는 남성의 역사와 여성의 역사를 작품 전체를 통하여 대비시킨다. 그는 시대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본질적으로 남성에게 의한 역사는 전쟁, 정복, 착취, 불공평한 분배 등 기아와 폭력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본다. 반면에 여자유리사들에 의해 주도된 식량과 요리의 역사는 인간을 양육하고 삶을 지속시켜 온 원동력이었다. 그러니까 남성들에 의해 허위 문명이 이루어진 반면에 여성들에 의해 진정한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소설에서 ‘넙치’는 남성들을 이성으로 무장시키는 “남성지배원리 das männliche Herrschaftsprinzip”이고 “진보 Fortschritte”는 “대기오염 Luftverschmutzung”의 다른 이름이다.

그라스는 지금까지의 남성중심 사회가 모든 진보에도 불구하고 기아문제를 해결하지

16) Ch. Wolf: Die Dimension des Autors. Essays und Aufsätze, Reden und Gespräche, Darmstadt/Neuwied 1987, S. 623.

17) G. Grass: *Der Butt*. Werkausgabe in zehn Bänden, Bd. V, Hrsg. v. Volker Neuhaus, Darmstadt/Neuwied 1987.

못하고 있으며 결국에는 인류를 파멸의 위기로 몰고 갈 것을 예고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촉구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라스가 평화스러웠던 모권사회를 이상향으로 설정하거나 여성주도의 사회를 건설하자는 것은 아니다. 해방된 여성이 남성의 행동방식을 그대로 모방할 경우 억압체제의 악순환은 또다시 되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해방은 양성 모두가 지금껏 지배해 온 사고의 틀과 관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지, 역할을 교체하는 것도 아니고, 생물학적인 차이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다. 소설은 남성과 여성 모두의 해방을 꾀하는 제 3의 길을 제시한다. 그것은 룬에엑 노파가 말하는 “둘다 함께”이다. 진정한 대안은 이분법적 사고와 대립구도를 넘어선 다른 세계에 있음을 3이라는 숫자가 제시한다.

크리스타 볼프의 『카산드라 *Kassandra*』(1983)¹⁸⁾는 전쟁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평화를 외치는 시기에 발표된 작품으로 인류 문명의 뿌리를 더듬고 있다. 볼프는 현대 인류 문명이 파멸로 치닫는 원인이 “본래 *Ursprung*로부터의 소외”¹⁹⁾에 있다고 본다. 즉 그는 “사냥을 하기 위해 처음 무기를 발명하고 먹이를 놓고 경쟁하는 다른 집단에 그 무기를 사용하고, 가부장적이고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집단이 모권사회 구조를 지닌 덜 효율적인 집단을 정복함으로써”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생산물을 얻으려는”²⁰⁾ 이 집단의 욕망이 인류를 파멸의 지경까지 몰고 왔다고 지적한다. 현대 문명의 파괴성은 가부장제의 필연적 결과이며 이 남성들의 역사가 전쟁, 약탈, 성폭력, 생태계 파괴를 낳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볼프는 양성의 대립구도를 그리지 않고 지혜롭고 생명력 있는 남성과 여성을 내세워 서로 화합하고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세계를 추구한다. 그것은 스카만더 강변의 동굴에서 이루어진 생태공동체이다.

흔히 여성성의 은유로 사용되는 ‘동굴’의 입구는 버드나무 “뿌리가 마치 여자의 음모처럼 뻗어나 있고” 문이 없으며 그저 숲으로 가려져 있을 뿐이다. 이는 이 공동체의 개방성과 포용성의 이미지를 나타낸다. 이 공동체는 트로이와 그리스가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 양 진영에서 온 여성과 소수의 남자들이 모여 이루어졌다. 그들의 대모역할을 하는 아리스베와 지도자 안히세즈는 생명력과 포용력 그 자체이며 정신적 지주이다. 때문에 전쟁터로부터 도망쳐 온 사람들은 이 곳에서 “죽이는 것과 죽는 것 사이의 제 3의 것, 삶 *Zwischen Töten und Sterben ist ein Drittes: Leben*”을 발견한다. 안히세즈는 “자상하게 나무와 대화를 하기 전에 나무를 벤 적이 없으며 그가 그 나무로부터 얻은 씨

18) Ch. Wolf: *Kassandra*, München 2000.

19) M. Quernheim: *Das moralische Ich. Kritische Studien zur Subjektwerdung in der Erzählprosa Christa Wolfs*. Würzburg 1990, S. 270.

20) Ch. Wolf: *Voraussetzungen einer Erzählung: Kassandra*. Frankfurter Poetik - Vorlesungen. Darmstadt/Neuwied 1983, S. 107f.

나 어린순을 땅에 심어 계속적인 삶을 보장하지 않고는 벤 적이 없었다”. 고향이란 문명의 힘이 닿지 않은 전원적인 모습을 연상시키고 마음의 평화를 주는 곳이다. 이 곳에 오면 사람들이 고향을 느낀다. 이런 곳에서는 경쟁이나 상대방 짓밟기, 밀어내기가 자리를 잡을 수 없으며 “자신을 자신 속에서 항상 생산해 낼 수 있는 미소짓는 생동력, 분리되지 않은 것, 삶 속의 정신, 정신 속의 삶 das lächelnde Lebendige, das imstande ist, sich immer wieder aus sich selbst hervorzubringen, das Ungetrennte, Geist im Leben, Leben im Geist”이 실현된다. 이러한 공동체는 “절멸과 죽음에 직면한 전쟁의 한 복판인 여기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살려는 구체적 희망의 모델”²¹⁾이 될 수 있다. 소설은 그동안 인류가 추구해 온 물질문명, 과학, 합리가 낳은 모순을 보여주고 이성과 감정 및 정신과 육체가 분리되지 않고 총체성이 구현되는 사회의 구축에 대한 열망을 표출하고 있다.

그라스와 볼프가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 즉 가부장제의 문명사회가 인류의 위기를 가져왔다고 서술하고 있는 반면에 뵐은 1970년대 독일사회의 병리현상에 다각도로 접근한다.

뵐의 소설 『신변보호 Fürsorgliche Belagerung』(1979)²²⁾는 독일사회가 직면하고 있었던 여러 문제, 즉 정계와 경제계 인물들의 부도덕성, 언론과 경찰의 결탁, 테러리즘과 그에 맞선 국가의 보안조치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²³⁾ 그러나 소설은 논의가 미미한 독일 소설 장르에서 흔치 않은 “환경소설”²⁴⁾로 여겨진다. 특히 뜯어보지도 않은 채 곧장 쓰레기통으로 향하는 술한 정당들의 선전 책자와 광고용 팜플렛 등에 의한 산림의 희생과 낭비, 석탄 채굴, 지속적인 산업화와 도시의 광역화로 인하여 전원적인 마을이 파괴되어 가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소설은 여러 사건들을 경제계의 핵심인물 프리츠 톨름의 가정을 통해서 보여준다.

지방의 작은 신문사 사장인 톨름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협조하여 언론제국을 이룩하고 경제인 협회 회장이 된다. 이로써 그는 테러리스트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정부의 보

21) R. Nicolai: Christa Wolf. *Kassandra*, Oldenborg 1995, 53쪽.

22) H. Böll: Werke. Romane und Erzählungen, Bd. IV, Hrsg. v. Bernd Balzer, Frankfurt a. Main/Wien 1987.

23) 소설의 시간은 1978년 11월이지만 1977년 가을 독일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제시하고 있다. 68 학생운동 이후에 결성된 테러 집단 적군파(RAF)가 감금되어 있는 그룹의 지도급 인물들을 석방시키기 위해 테러를 가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1977년 4월부터 그 해 가을까지 정치, 경제계의 고위급 인물 3명과 그들의 기사와 경호원을 살해하고 87명의 승객이 탄 루프트한자 여객기를 납치하여 감방에 갇혀 있는 동료와 교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적군파의 테러행위가 절정에 이르렀던 1977년 가을까지 28명이 죽었고 17명의 도시게릴라군이 시체로 발견되었으며 추적 시에 경찰의 오인으로 2명의 시민도 사살되었다. 결과적으로 모두 47명이 목숨을 잃었다. Vgl. Stefan Aust: *Der Baader-Meinhof-Komplex*, München 1989, S. 592.

24) R. H. Reid: Heinrich Böll. Ein Zeuge seiner Zeit, München 1991, S. 267.

호와 감시의 대상이 된다. 때문에 그는 “안전망” 속에서 소진되어 가는 ‘포로’나 마찬가지이다. 그야말로 산업화와 자본주의화에서 얻은 그의 풍요가 무화되어 버릴 지경에 있다. 정부는 “정지와 굴착 - 그리고 나면 석탄이 말해준다 Planieren und Buddeln - dann stimmen die Kohlen”라는 슬로건 아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지역이면 “풀 한 포기”는 커녕 “두더지 발자국 하나 찾아볼 수 없게” 파헤친다. 명예욕이 강하지만 기회주의자가 아닌 톨름은 내심으로는 정부의 개발 이데올로기를 은근히 경멸하며 경찰의 안전보호조치에도 신뢰감을 갖지 못한다. 소설은 프리츠 톨름의 시각으로 독일사회의 반 생명적 개발과 ‘밀실’은 없고 ‘광장’만 있는 비민주적인 본성을 포착한다.

자본가 아버지에 저항하는 자녀들은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간다.

자본주의의 상징물에 폭력을 가하고 4년을 복역하고 나온 큰아들 롤프는 공산주의자인 아내와 시골에서 채소를 가꾸고 급속한 현대화로 버려진 목재들을 손질하여 내다 팔아서 생활하며, 환경운동가인 작은아들은 반자동차운동 Anti-Auto-Aktion을 벌인다. 딸 자비네는 자기의 그물망에 걸려든 모든 것을 상품화시키는 사업가 남편 피셔의 파렴치함과 사악함에 염증을 느끼고 그와의 허위적인 삶을 청산한다. 비인간적인 사회에서 혼기를 맞볼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인 가족공동체마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강요받는 사회와 비틀린 세상에서 생에 대한 희망을 주고 살만한 사회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고자 했던 빌은 붕괴 직전의 사회라도 문학의 힘을 통해 평화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다는 바람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럼으로써 그는 독자에게 사회가 개선될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 이 희망의 짙은 폭력을 자제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에서 엿볼 수 있다.

큰아들 롤프는 서로 긴밀하게 연대하고 있는 체제의 강력한 힘에 더 이상 폭력으로 맞서지 않고 체제를 경멸하기로 작정하고 “내면으로의 망명”²⁵⁾생활을 하고 있다. 그는 “언제나 남아버린 헛소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경멸”하고 “인식한 사실을 배반하지 않기로 결심한” 채 자궁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자본주의 사회의 거대한 힘에 대항하는 체제반대운동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적인 저항을 자제하고 있는 것이다. 폭력은 폭력을 낳을 것이며 이 악순환의 연속으로 인하여 결국 무고한 시민들만 피해를 볼 것이기 때문이다. 작은아들 헤르베르트도 같은 이유에서 폭력적인 반자동차운동을 포기하며 큰머느리였으며 현재 테러리스트인 베로니카도 소설의 결말에서 자수함으로써 폭력을 자제한다. 하지만 가장 큰 희망은 아버지 톨름의 완전한 의식전환

25) R. H. Reid: Heinrich Böll. Eine Zeuge seiner Zeit, München 1991, S. 265.

으로부터 나온다.

경제인 협회 회장 톨름의 완전한 태도변화는 큰아들의 친구이자 테러리스트인 베벨로가 자폭하는 일이 계기가 되었다. 자본가 톨름은 동료의 장례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반자본주의 테러리스트 베벨로의 장례식에 참석함으로써 자본주의 체제의 선두에서 ‘하차’하여 버린다. 그는 베벨로의 장례식이 끝난 후에 그동안 은밀하게 품어왔던 소망, 그러나 한 번도 입 밖으로 표현하지 않았던 “어떤 사회주의가 와야 하고 승리해야 한다”는 말을 내뱉음으로써 그동안 어중간한 위치에서 어정쩡하게 살아왔던 인생을 청산하였음을 밝힌다. 소설은 “이 쪽 저쪽 -소련을 말함- 할 것 없이 매일 더 많은 환자와 노예를 만들어 내는 체제”라고 말할 뿐 “어떤 사회주의”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여기서 가리키는 “어떤 사회주의”는 1970년대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그런 사회주의가 아니라, “이윤과 계급의 차이가 없고”²⁶⁾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며 인간성이 살아 있는 사회이다. 이런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톨름 부부는 큰아들이 살고 있는 시골마을 후프라이헨에 모여서 작은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한다. 그 곳의 사람들은 우유를 농장에서 직접 사오고 빵을 손수 구우며 채소밭을 직접 가꾼다. 아주 단순한 생활이 펼쳐지는 곳이다. 안전망의 감옥과 인공정원이 아니라 가공되지 않은 투박하고 소박한 자연 그대로의 생태공동체이다.

『신변보호』가 제시하는 세계는 반 생명적인 개발이 없고 모든 생명체가 공생하며 평화적으로 개선해나가는 사회이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는 자본주의의 파괴성에 대한 통찰과 비판이 이루어질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혹자는 뵐이 사회생태론자 루돌프 바로의 영향을 받지 않았나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생태평화론자라는 의미에서 둘의 성향은 비슷하나, 뵐의 인터뷰와 글에서 바로의 흔적은 찾아 볼 수 없다. 뵐은 참여작가로서 현실 앞에서 ‘장님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몸으로 실천하면서 생태학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독자에게 영향을 미치고자 했다. 그는 작가생활 초반부터 독일이 사회주의를 구축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²⁷⁾고 개탄하였으며 1950년대부터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또 1961년에 쓴 「칼 마르크스 Karl Marx」에서는 노동자 계급을 사회 변화를 위한 유일하고 현실적인 힘으로 여기지 않음을 밝히고 사회를 평화적으로 개선하기를 희망하였다.²⁸⁾ 이 희망

26) H. Böll: Drei Tage im März, Köln 1975, S. 73.

27) Vgl. Ebd.

28) Vgl. H. Böll: Essayistische Schriften und Reden, Bd. 1, Hrsg. v. Bernd Balzer, Köln 1979/1980, S. 298ff.

이 그의 소설의 근거를 이루고 있다.

VI. 맺는 말

생태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던 하인리히 뵐²⁹⁾과 에리히 프리트³⁰⁾가 사망한 이후 - 엘프리데 엘리넥의 『죽은 사람들의 아이들』(1995), 우르스 비트머의 『콩고에서』(1996), 크리스타 볼프의 『메데아』(1996) 등의 생태소설이 있긴 하지만 - 독일 생태문학은 활기를 잃은 듯하다. 물론 그동안 시민들의 지속적인 환경운동과 정부의 환경정책에 힘입어 생태적 패러다임이 정치, 경제, 산업, 문화, 교육현장에 뿌리를 내렸다. 뿐 아니라 독일 정부는 지구의 온실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방출량을 1990년을 기준으로 하여 21%로 떨어뜨리고, 핵발전소는 2021년에 완전폐쇄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일간지 <디 벨트>가 15세부터 24세까지의 젊은이들을 상대로 기관의 신뢰도를 조사(2000)한 바에 따르면 환경보호단체가 가장 신뢰받는 단체로 나타났다. 그만큼 시민운동이 생태 살리기에 큰 역할을 하였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자연생태계 뿐 아니라 사회생태계와 인간의 정신적 생태계까지 치유된 생태사회를 건설하는 일은 아직 요원하다. 때문에 추상언어나 그럴싸한 훈계로써가 아니라 구체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생태계의 위기를 총체적으로 생생하게 보여주는 생태소설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전체를 보여준다는 장점 때문에 생태소설은 생태, 정치, 경제, 윤리 등 여러 분야가 얹혀 있는 생태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에 가장 좋은 장이다. 따라서 생태소설은 단순한 고발과 비판을 넘어서서 어떤 대안, 즉 실천하고자 하는 강력한 희망이 담긴 에코토피아를 보여주어야 한다. 왜곡된 현실 속에서 작가가 제시하는 하나의 대안이 “유토피아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어떤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지 아주 정확히 파악한다면 실현 가능하다”³¹⁾고 하인리히 뵐이 주장하듯이, 유토피아적 비전이 없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인간의 노력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고 삶의 기쁨이 된다. 따라서 생태문학은

29) 뵐이 사망(1985)한 이후, 한스 마그누스 엔첸스베르거는 『중도와 광기』에서 “우리는 하인리히 뵐을 잃었지만 대신에 국제사면위원회와 그린피스가 있다”고 뵐의 빈자리를 애석해하고 뵐을 이어받을 작가가 없음을 안타까워 하였다(H. M. Enzensberger: *Mittelmaß und Wahn, Gesammelte Zerstreuungen*. Frankfurt a. M. 1988, S. 238f).

30) 주로 생태시를 썼으며, 1988년 사망하였다.

31) H. Böll: Im Gespräch. Heinrich Böll mit H. L. Arnold, München 1971, 57쪽.

생태학적 상상력과 울림을 주는 언어를 통해서 지구상의 모든 존재가 사랑으로 하나되는 생태사회를 실현하는 데 나서도록 독자를 자극해야 한다. 이것이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오늘날 생태문학이 해야 할 역할이다.

참고문헌

- 최문규, 자연철학에 기초한 독일낭만주의의 자연관 및 문학관, 실린 곳: 윤호녕/최문규/고갑희: 19세기 자연과학과 자연관,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 Ametsbichler, E. G./Arens, H.: Erzählstrategie und Geschlechtskomponente in Bettina von Arnims *Die Günderrode* und *Clemens Brentanos Frühlingskranz*. Ein Vergleich. In: Internationales Jahrbuch der Bettina von Arnim- Gesellschaft (Forum für die Erforschung von Romantik und Vormärz, Band 5 -1993) Berlin.
- Arnim, Bettina von: *Goethes Briefwechsel mit einem Kinde* (in Sämtliche Werke, Bd. 4), Hrsg. v. Waldemar Oehlke, Berlin 1920.
- Arnim, Bettina von: *Dies Buch gehört dem König* (in Sämtliche Werke, Bd. 6), Berlin 1921.
- Aust, Stefan: Der Baader-Meinhof-Komplex, München 1989.
- Bahro, Rudolf: Die Logik der Rettung, Stuttgart 1987.
- Böll, Heinrich: Werke. Romane und Erzählungen, Bd. IV, Hrsg. v. Bernd Balzer, Frankfurt a. Main/Wien 1987.
- Böll, Heinrich: Essayistische Schriften und Reden, Bd. 1, Hrsg. v. Bernd Balzer, Köln 1979/1980.
- Böll, Heinrich: Im Gespräch. Heinrich Böll mit H. L. Arnold, München 1971.
- Böll, Heinrich: Drei Tage im März, Köln 1975.
- Enzensberger, H. Magnus: Mittelmaß und Wahn, Gesammelte Zerstreuungen. Frankfurt am M. 1988.
- Gajek, Bernhard (박진형 역): Bettina von Arnim. Von der Romantik zur sozialen Revolution. 실린 곳: 계명대 독일학지, 1992, 1-13쪽.
- Goodbody, Axel: : Ökologie und Literatur, Amsterdam 1998.
- Grass, Günter: *Der Butt*. Werkausgabe in zehn Bänden, Bd. V, Hrsg. v. Volker Neuhäus, Darmstadt/Neuwied 1987.
- Jens, Walter (Hrsg.): Kindlers Neues Literatur Lexikon, München 1991.
- Keller, Gottfried: *Romeo und Julia auf dem Dorfe* (in *Die Leute von Seldwyla*), München 1991.
- Nicolai, Rosemarie: Christa Wolf. *Kassandra*, Interpretation, Oldenbourg 1995.

Quernheim, Mechthild: Das moralische Ich. Kritische Studien zur Subjektwerdung in der Erzählprosa Christa Wolfs. Würzburg 1990.

Raabe, Wilhelm: *Pfisters Mühle*, Stuttgart 1985.

Reid, James H.: Heinrich Böll. Eine Zeuge seiner Zeit, München 1991.

Wolf, Christa: *Kassandra*. München 2000.

Wolf, Christa: Voraussetzungen einer Erzählung: *Kassandra*. Frankfurter Poetik - Vorlesungen. Darmstadt/Neuwied 1983.

Wolf, Christa: Die Dimension des Autors, Darmstadt/Neuwied 1987.

Wolf, Christa: Dokumentation. In: The German Quarterly 57, 1984.

Zusammenfassung

Entwicklungsgang der Deutschen Ökologischen Literatur

Sa, Sun Ok (Konkuk Uni.)

“Ökologie faßt die Welt als Ensemble integrierter Systeme und als Ganzheit auf, in der alles voneinander abhängig ist”. ‘Ökologische Literatur’ verknüpft Ökologie und Literatur, und betrachtet Letztere im Rahmen einer ökologischen Weltanschauung. In der deutschen Literatur muss man auf die Romantik zurückgehen, um auf die Wurzeln einer ökologischen Literatur zu stossen, denn in der Romantik findet man vielfältige Elemente einer ökologischen Weltanschauung.

So kritisierten die deutschen Romantiker insbesondere das mechanistische Denken der Aufklärer. Diese dachten, dass die Natur durch die Instrumente der Mechanik bezwungen und bearbeitet werden kann. Derart legitimierten sie die Ausbeutung der Natur. Romantiker wie z. B. Novalis und Bettina von Arnim erkannten dagegen die Ganzheit und das Geheimnis der Natur. Ihnen zufolge ist die Natur ein lebendiges Subjekt, das sich mit dem Geist verständigt. Für sie “soll die Natur der sichtbare Geist, und der Geist die unsichtbare Natur sein”. Ein solches Denken enthält deutlich Bezüge zu einer ökologischen Weltanschauung. Bettina von Arnim, die sich klar in den Rahmen solch einer Weltanschauung gestellt hatte, bestand weiterhin besonders auf dem Gedanken, dass alle Menschen auf der Welt gleich sein sollen. So bemühte sie sich lebenslang um das leibliche Wohl der Armen und die Freiheit der Unterdrückten. Sie kann somit in gewissem Sinne als ‘die erste Sozialistin’ bezeichnet werden.

Im 19. Jahrhundert brach das dörfliche Bauerntum in Gefolge von Industrialisierung und Kapitalisierung der Gesellschaft zusammen.

Wilhelm Raabe stellt diese Katastrophe in *Pfisters Mühle* am Beispiel der Mühle dar, die durch das moderne Unternehmen ruiniert wird. Die Mühle Pfisters kann nicht mehr betrieben werden, weil die Zuckerfabrik mit ihren Abwässern den Mühlbach verpestet. Zwar prozessiert Pfister gegen die Zuckerfabrik, aber letztlich ist die Mühle nicht zu retten, denn mit ihr ist

auch die Welt gestorben, in der sie ihren Platz hatte. Das Werk gilt als “einer der ersten literarischen Texte, die das Problem moderner Umweltverschmutzung zum Thema machen”.

Die deutsche ökologische Literatur entwickelt sich aufrichtig seit der alternativen Bewegung, die in den 70er und 80er Jahren für 'Umwelt, Feminismus, Frieden' eintrat. In dieser Zeit stellten Autoren eine ökologische Utopie, Ökotopia, in ihren Romanen dar, in der der Mensch als ein Glied der Natur mit den Anderen und mit der Natur im Einklang friedlich zusammenlebt, was uns als Vision einer zukünftigen Lebenswelt erscheinen mag. Die Möglichkeit solch einer ökologischen Welt weisen Günter Grass in *Butt* und Heinrich Böll in *Fürsorgliche Belagerung* auf. Christa Wolf schafft in *Kassandra* das Modell einer ökologischen Gemeinde

Die Literatur kann damit dazu beigetragen, den Weg zu dieser neuen Utopie, Ökotopia zu erschliessen. Es ist die Aufgabe der ökologischen Literatur, die Leser durch Anregung ihrer ökologischen Fantasie und durch sprachliche Intensität zum Handeln aufzurufen.

검색어: 생태학, 생태문학, 에코토피아, 자연의 착취

Stichwörter: Ökologie, Ökologische-Literatur, Ökotopia, Naturausbeutung

〈논문투고일: 2003. 11. 11; 논문심사일: 2003. 11. 29; 게재확정일: 2003. 12. 15〉